

[종합·해설]

이원영 의원 '광주 사태' 발언 파문

與 '호남악재' 초비상

열린우리당 인권위원회인 이원영 의원의 '광주사태' 발언이 지방선거 정국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유감 성명을 즉각 발표했으며 시민단체들도 반응 수위를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광주시민들 사이에서도 "당사자가 사죄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사 의식 부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일고 있다.

◇발언 내용은=이 의원은 12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평택 주한미군기지이전 문제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군대 투입' 상황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광주사태는 직접적인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바로 (군이) 투입된 것"

당직 박탈 등 발빠른 수습

민주 강력 대응 선거쟁점화

5·18 관련 단체 유감 성명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과거 전두환 정권이 광주사태에 개입했던 것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군이 개입했다고 보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네,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질서유지란 측면에서 (광주와 평택이) 공통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광주사태는 직접적인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바로 투입된 것이고 평택은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군인이 들어간 것으로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호재=민주당은 광주·전남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실수를 선거에 적극 이용할 테세다. 조재활 사무총장의 공천자금 수수와 공천 잡음으로 수세에 몰리다가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박광



'광주사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광산동 구 전남도청에 마련된 5·18 26주년 행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 김옥현 사무처장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있다. /워킹기자 jrwi@kwangju.co.kr

상쾌한 아침 편안한 잠 푹신풉신한 "수맥돌침대" 몸이 찌뿌둥 할 때! 미국 F.D.A승인

갈수록 투기증후 감사대 힘들

갈수록 투기증후 감사대 힘들

한편한 면밀회 최고브랜드 大賞

한편한 면밀회 최고브랜드 大賞



온나노 특허 "수맥돌침대" 한국기구 천연침 세트



4개 대회 5차례 금메달 수상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등 국구선수

국내 대회 우승자 우승

국내 대회 우승자 우승